

필수의로 지역격차 해소 추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정 이송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 강화=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70여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의 기능을 부여한다. 복지부-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단축해나간다.

△의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의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의료취약지와 필수

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평가·컨설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포용국가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전체 노인 8% 차지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377곳 운영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이 59만명이었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8.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9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8.0%를 차지했다. 인정률은 2013년 6.1%에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 3382명, 2등급 7만 9853명, 3등급 19만 6167명, 4등급 22만 3884명, 5등급 4만 2001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 7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5조 937억원(88.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 8867명으로 전년대비 11.3% 늘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 3129원으로 3.3% 올랐다. 공단부담금은 97만 5496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37만 7184명으로 전년보다 약 9.6% 확대됐다.

대부분의 인력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 늘었다. 사회복지사는 1만 8535명으로 전체 인력의 4.9%를 차지했으며 26.2% 증가했다.

의사는 2198명으로 0.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30.6% 늘었다. 간호사는 2791명으로 전체 인력의 0.7%였으며 4.3% 증가했다.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은 2만 377곳이며 재가기관이 1만 5073곳, 시설기관이 5304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많아졌다.

주혜진 기자 hjjo@



창조적 자기표현 통해 치유의 힘 키워

동양대 간호학과 '예술과 문화' 교과목 운영

동양대 간호학과에서 '예술과 문화' 교과목을 2학년 1학기 전 공선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연금 외래교수가 지난해부터 '예술과 문화' 교과목을 맡아 '춤추는 뇌, 춤추는 간호' 주제로 가르치고 있다.

춤, 음악, 명상, 그림, 글쓰기, 즉흥극 등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이 창조적 자기표현 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치유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전인간호를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길러지는 것이다.

자기표현에 서툴거나 자기표현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몸짓을 통해 억압됐던 감정을 만나고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마치고 학기말이 되면 학생들은 그룹자화상 공연을 한다. 그룹별로 나누어 학생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역할을 나눠 맡아 연습하고, 소품 등을 직접 준비해 무대에 오른다.

김연금 외래교수는 "학생들이 창조적 에너지와 끼를 발휘하며 공연 준비에 몰입하고 완성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의 표정, 말과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발걸음 하나 몸짓 하나를 바꾸는 움직임은 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치유가 선행돼야 진정한 전인간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춤추는 뇌, 춤추는 간호'라는 타이틀을 생각하게 됐고, 치유의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연금 교수는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경영학(뇌과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표현예술치료분야의 선두자인 미국 타말파스콜 프랙티셔너 자격을 갖고 있다. 국제공인신체동작교육자(RSMIE), 국제공인신체동작치료사(RSMT),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다. 한국 표현예술치료학회 이사, 한국보안대체요법간호사회 명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8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보수교육(8시간 인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임상검사의 이해 및 간호	심전도의 이해 및 간호
일시	2018. 11. 14. (수)	1차 - 2018. 11. 28. (수) 2차 - 2018. 12. 12. (수)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원	100명(선착순 마감)	
신청기간	2018. 10. 8. (월)~11. 9. (금)	2018. 10. 22. (월)~11. 19. (월)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및 결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열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차 당사국 총회에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 총회는 10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는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맡았으며,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소비와 흡연을 감소를 위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올해 9월 기준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5월에 비준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해 각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공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시장전망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실내체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성공적 시행,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담배제품 노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및 권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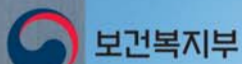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각국의 담배규제 현황 및 성과를 모니터링했다"며 "향후 금연정책을 보완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독자주소 변경 ☎ 02) 2260-2571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혜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koreanurse.or.kr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상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협회 (02) 226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간호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 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현심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년간호사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www.RNjob.or.kr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ONE-STOP
SERVICE

의료기관의 구인 정보 간호사의 교육·상담·취업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 **의료기관**
무료 병원홍보, 구인공고, 취업연계
재취업 실무훈련비 최대 100만원, 실습비 25만원 의료기관에 지급(간호사 1인 기준)
- ✔ **신규·재직 간호사**
지속적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교육
- ✔ **이직·유휴 간호사**
상담사가 근로환경, 출퇴근거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의료기관 취업 연계
- ✔ **간호대학졸업예정자**
최신 의료정책 소개, 진로교육, 우수의료기관 취업정보 제공

대표번호 **1522-1755**

권역센터 연락처

서울·강원 02-2268-2631~3 부산·울산 051-442-3824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제주 032-441-2926 광주·전북·전남 062-222-5025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경기 031-302-9504 경남 055-281-5522